



FATHER'S DELIGHT

2024 FATHER SCHOOL

아버지의 큰 기쁨을 들어 올리며

어린 두 아들을 양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는 아빠의 등을 바라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매일 전쟁을 치르듯 바깥에 나가 일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집 앞에서

아버지는 한없이 무거운 몸과 마음일랑 툭툭 털어버리고,

내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는 기쁨으로 또 하루를 충전합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아이의 무게에 놀라면서 묵직한 전율도 느낍니다.

그렇게 우리는 김현승의 시 <아버지의 마음> 첫 구절처럼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되는 의미를 깨닫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따스한 체온으로 아버지의 노고와 고독의 때를 씻겨 줍니다.

아버지는 누구나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인 세상에서 돌아와

내 아이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시끄러운 마음을 씻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도 아버지는 장성한 자녀의 삶을 통해

‘지극한 사랑의 환희’를 선물 받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 이사장 최 성 완



FATHER'S DELIGHT

2024.02

CONTENTS



Father's Delight

지온이 아빠의 기쁨 찾기	02
나를 붙들어주는 끈	06
가장 깊은 밤, 더 빛나는 별빛	10

Letter

저는 언제나 아빠 편이에요	14
----------------	----

Father's Mission

아버지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16
우리는 아버지학교 동창생	18
아버지학교 스태프란?	22

Staff's Delight

꿈을 키우는 성장소	24
같이 쓰는 아버지학교 이력서	28
특별한 빛을 보내오는 사람들	32
책 읽는 아버지가 자녀의 미래다	34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과 교회, 기업이 삽니다	36

발행.편집인 최성완
기획.편집 김문영
발행일 2024. 02
디자인.제작 씨앤티커머스
02.587.6860

발행처 (사)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주 소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13길 9
전 화 02.2182.9100
팩 스 02.529-9230



홈페이지
www.father.or.kr



유튜브채널
아버지학교TV



지온이 아빠의 기쁨 찾기

저는 지온이 아빠 김현준 강남아버지학교수료입니다. 평소 말을 예쁘게 하는 아들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때론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아이의 말에 위로를 받는데, 틀에 박힌 어른들의 말, 생각, 시선으로부터 해방감을 맛보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내 안의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아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온이의 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아들 됨’ ‘순수한 내 본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지온이 4살 때부터 ‘지온이가 표현하는 말을 기록해 두어야겠다’ 생각했어요. 아이의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간단하게 글과 사진으로 메모하고, 인스타그램일부공개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지온이의 말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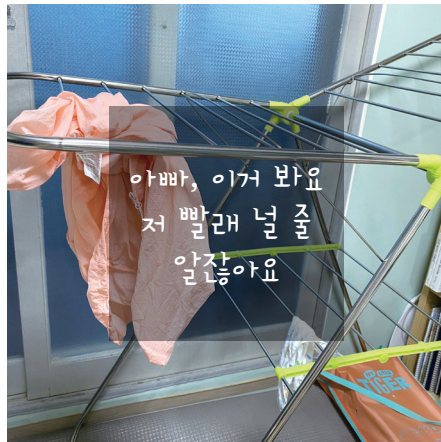
zzioni_speaking



하늘 구름을 바라보는 아이의 마음.



zzioni_speaking



지온이가 빨래를 널었다.



아빠가 빠졌다. 아들이 아빠를 달랜다.



밤이 되면 둘째가 잘 운다.
지온이가 때로는 따스한 말로 위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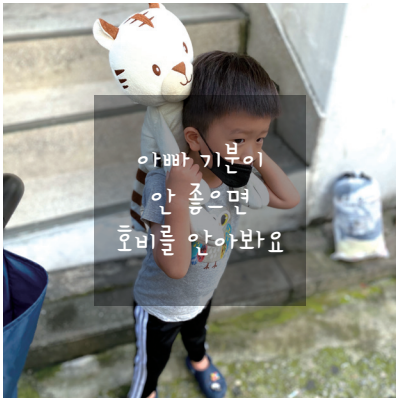
내가 언성을 높이면 항상 지온이가 하는 말이다.
뺨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



유난히 언덕이나 계단에서만 힘이 나가나 보다.



zzioni_speaking



지온이의 최애 인형, 호비.

아침밥을 먹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

화를 냈더니

‘호비를 안아보라’고 한다.

아이가 보기에라도 화는

불안정한 감정 상태라는 걸 안다.

워워~시켜줘서 고맙구나^^

아빠는 너희들 때문에 울고 웃는다.



zzioni_speaking



카페를 좋아하는 아이,

그냥 맛있는 걸 먹어서가 아니라

솔직하게 잘 말할 수 있어서.

카페는 지온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와 아빠가 소통하는 행복한 공간이다.



zzioni_speaking



아내와 “아이들 키우면서 힘든 일도 많지만, 보람도 있

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고 붙어있을 때가 제일 행복

하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 문득 아이들은 언제 행복할

까 궁금해서 먼저 첫째에게 물었더니 “엄마랑 아빠랑 같

이 있는 거”라고 대답한다. 우리 이야기를 들었는지, 엄

마 아빠에 대한 애착이 강한 건지 모르겠지만, 감동 그

자체!! 왜냐면 둘째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기에~ “너

는 어떠니?” “빠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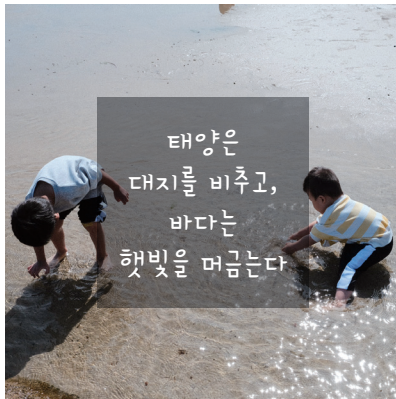
zzioniSpeaking



아이와 지내다 보면 화를 이겨내지 못할 때가 많다. 화를 내면 어느 쪽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아이는 아이대로 위축되고, 아빠는 아빠대로 끝내 후회만 남는다. 그래도 각자 나름의 결심으로 부모와 자녀는 연합한다. “아빠가 화를 내도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지온이의 말이 한 순간이어도 좋다(아니었으면 더 좋겠지만).



zzioniSpea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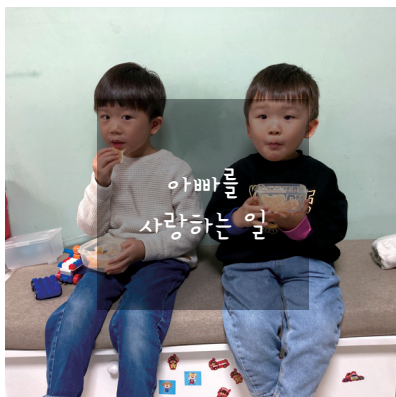


우리는 여기 머물러 모든 것을 누린다.
 머물되, 정체되지 않으며
 누린 것들을 펼쳐낸다.
 사계절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혹독한 겨울 너머 봄을 기다리고 또 그곳에 머물기를.
 그리고 그 따스함을 펼쳐내길~
 이것이 아이들을 향한 엄마 아빠의 마음이란단다.

[#오늘은나의이야기](#)



zzioniSpeaking



어린이집 다녀와서 해야 할 일이 있단다.
 “아빠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아마 많이 바쁠 거다 너.



아버지의 큰 기쁨 찾기. 동영상 확인 후 함께하세요



나를 붙들어주는 끈

저는 2006년 서울 동부아버지학교 25기를 수료한 심정보 형제입니다. 가족은 아버지학교 수료 후 저를 더 많이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고요. 아들 둘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남들에게 “심정보 형제는 천사 같은 아내와 산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천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죠.

아내 손잡고 턱걸이로 아버지학교 들어와

우진이 동진이 서른넷, 서른셋 연년생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두 살도 안 되는 지능을 가졌어요. 태어나자마자 황달이 걸려 그렇게 되었죠. 부모의 부족한 지식 때문에 그리된 건 아닐까, 늘 미안해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만일 황달이 뇌까지 퍼졌으면 지능이 떨어지거나 말을 못 하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내 몸조리가 어땠어요. 다른 병원에 가서 뇌 사진도 찍어보고, 치료할 방법을 찾아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민간요법까지 시도해봤죠. 요만한 아이 몸에 대침을 다 꽂는데 차마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걸 몇 개월을 했어요.

그러다 같이 죽어버리려고, 부산 태종대 모자상으로 아이를 안고 두 번을 갔어요. 가서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나!’ 다시 돌아왔죠. 그날부터 제가 타락을 했던 거 같아요. 집에 가면 아이가 밤새 울어요. 바로 동생도 태어났거든요. 단칸방 살면서, 두 아이가 울어대면 미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 공장 사무실에서 지내며 술에 취해 살았죠. 몇 년 동안 그러다 결국 공장 문 닫고 저 혼자 서울로 왔어요. 아내랑 아이들은 부산에 둔 채.

새로운 삶을 살려고 왔는데, 친구 집에 혼자 있으니까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아내를 데려왔죠. 사람이 참 그런 게 아내랑 아이들이 옆에 와 있으니까 또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회사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술 먹고 부산에서부터 탔던 오토바이를 서울에서도 계속 타고 다니다 사고도 나고 병원 신세도 많이 졌죠. 그러니 생활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내가 못 살겠다며 “이혼하자, 차라리 죽자”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차에 남포교회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사랑부에 김자환 형제님 부부가 봉사자로 있었어요. 그분이 아버지학교가 있다는 걸 아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학교를 알았는데, 몇 년을 버티다가 억지로 끌려갔죠. 아내가 손 불잡고 가서 문까지 열어줬어요. 13조, 마지막 턱걸이로 등록했습니다. 2주 차가 끝나고 김자환 형제님이 다음 기수 진행을 맡았다며 스태프 기도 모임에 오라더라고요. 수료도 안 했는데 참석한 거죠. 그러면서 ‘수료하면 아버지학교를 섬기면서 나를 다잡아보겠다’ 결심했습니다.



우진이가 선물인지 몰랐어요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가 가르쳐줬나요? 그냥 나이 차면 결혼하고, 살다 보니 아이가 생겨서 아버지가 되었다고요. 그러니 시행착오가 많은 거죠. 결혼 18년 만에 아버지학교를 했는데, 이전엔 나만 생각하고 내가 곧 법이었죠. 그런데도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있어 줬다는 게 감사해요. 그런 사람하고 누가 살까요? 아마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천사라는 소리를 듣죠. 우진이도 그냥 보기 싫고, 죽으려고만 했지, 소중함을 몰랐으니까.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한 형제님이 “당신이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진이를 선물로 보내주지 않으셨을 거다” 그 소리를 듣는데 충격이 컸죠. 그리고 우진이를 보는데, 진짜 선물이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 장애인 시설에서 우진이를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보내면 거기서 살아야 해요. 아내와 둘째 아들에게 “어떻게 할까?” 두 사람 의사에 따르겠다며 물어봤죠. 아내는 아무 소리 못 하고 눈물만 툭툭 흘리는데, 동진이가 “형 보내고 살 수 있어요? 조금 힘들지만, 같이 살아요” 그 소리를 듣고 “그래, 같이 가자!” 결정했죠. 근데 지금도 하루에 열두 번씩, 아니 열두 번도 더 ‘그때 보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이런 아이들 특징이 크면 클수록 더 나빠지거든요. 제일 힘든 게 잠을 안 자고 온 사방 다니면서 불을 켜다 껐다 하고, 잠도 못 자고 힘들게 해요. 특히 아내가 아이 때문에 잠 못 자는 거 보면 참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잘 지켜줘야죠. 제가 어느 목사님께 “우진이가 저희보다 일주일 먼저 하늘나라 가게끔 기도해주십시오” 재를 두고 어찌 부모가 눈을 감을까 해서 부탁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기도는 못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생긴 것도 아버지학교를 하면서부터입니다.



지금처럼만 살고 싶어요

아내가 저에게 ‘아버지학교만 하라’ 했어요. 돈도 벌지 말라고 했죠. 우진이 돌보면서 정말 지부 스태프로 아버지학교만 하러 다녔습니다. 물론 섬기는 마음도 좋지만, 나를 위한 일이었죠. 당시엔 아버지학교 티셔츠를 계속 입고 다녔고요. 이 옷이 ‘나를 붙들어주는 끈’ 같았어요. 이 옷 입고 이상한 데 못 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아버지학교 스태프를 할 거 같아요. 끈을 놓으면 언제 또 세상적으로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사람이니까.

제가 아버지학교를 하고 나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상도 받은 적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가정’ 수기 공모전에서 입상했거든요. 가정법원장 있는 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학교가 가정을 살린다. 저를 살려주셨다. 이혼 위기의 가정을 살려준 게 아버지학교다” “위기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 마지막 단계에 아버지는 아버지학교를 어머니는 어머니학교를 보내면 좋겠다.”

제가 결혼 18년 차에 아버지학교를 했고, 그전에는 빵점짜리 아빠, 빵점짜리 남편이었는데 그 이후로 18년입니다. 이제 인생 후반전을 살고 있는데, 매일 아침 눈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떨까, 기다려줍니다. 저희가 2023년 9월에 작은아들과 떨어져 살다가 합쳤습니다. 네 식구가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래요. 행복하더라고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네 식구가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아, 이게 사는 거다. 삶의 맛이다, 이게 가정이다’ 저는 욕심 없습니다. 지금처럼만, 지금처럼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가장 깊은 밤, 더 빛나는 별빛

저는 김포아버지학교 41기를 수료한 정철모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채혜경 자매와 딸 셋, 아들 하나 사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사춘기 수업》을 출간했는데요, 가슴으로 낳은 셋째 딸 별이(가명)를 키우면서 특별한 사춘기를 보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동굴을 지나는 것처럼 캄캄한 시기라도 그 안에 빛나는 기쁨이 분명 있거든요. 우리 이야기가 사춘기 자녀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사춘기 수업

방향하는 내 아이 속마음 읽기

280쪽/청년정신/2023.11.30.발행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사춘기 수업》이라는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채혜경 사춘기는 당사자인 아이도 힘들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에게도 힘든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별이만 아니라 사춘기에 다양한 경험을 한 친구들의 목소리를 담은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어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말해주었거든요. 이렇게 부모가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을 알고, 아이들도 부모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사춘기 수업’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정철모 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힘든 일이 많았지만, 참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녹여낼까, 제일 고민했죠. 그래서 글을 쓸 때마다 별이의 오케이 사인이 중요했습니다. 가족 카톡방에 글을 올려서 괜찮은지 물어보고, 다 쓰고 나서도 출력해서 여러 번 읽어보았죠. 가족이 함께 책을 썼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별이는 항상 “좋아, 난 괜찮아” 그렇게 반응했어요. 저는 그 말이 “나 이제 사춘기 지났어”라는 말로 들리더군요. 무엇보다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다는 생각에 집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채혜경 아이가 “철없을 때 좀 놀았던 건데 뭐 어때~ 괜찮아” 쿨~ 하게 반응할 때, 오히려 저를 돌아보았어요. ‘내가 아이를 예전 모습으로만 보고 있지 않나?’ 사춘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고, 기대하는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말이죠. 사춘기는 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시기로 아이를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춘기에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한 별이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셨나요?

채혜경 아이가 밤에 자살하려고 마포대교에 가서 두어 시간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담임 선생님에게 듣고 가슴이 뚫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넌지시 물어봤더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그러다가 엄마 아빠와 언니들과 동생 생각에 펄펄 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하소연 삼아서 전화를 했어요”라면서, 그날 친구가 함께 울면서 별이를 설득했고, 마음을 고쳐먹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힘들었나...’ 가슴이 아려서 한참 울었습니다. 부모 앞에서 화를 내거나 반항적인 행동을 보인 적도 별로 없고, 워낙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어떤 징후들로 ‘아이가 방황하고 있구나, 아파하고 있구나’ 짐작할 수밖에 없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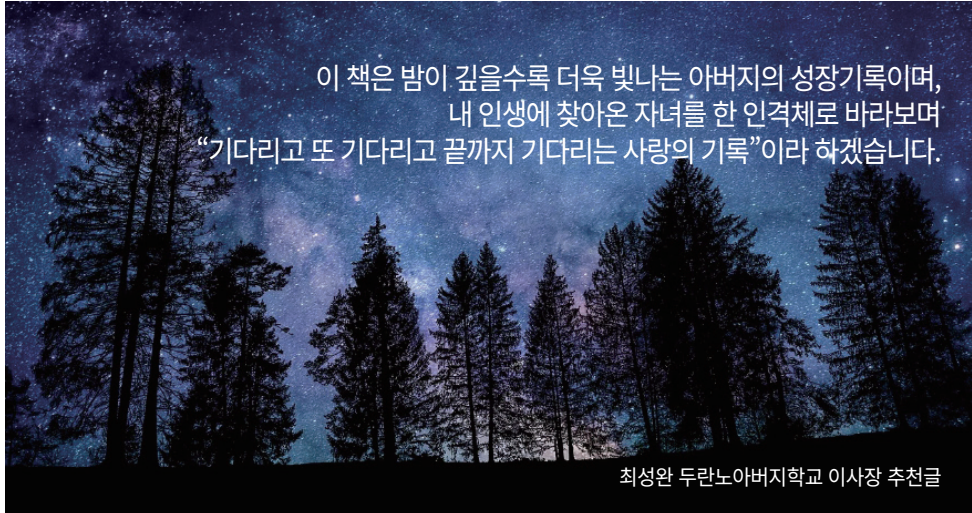
정철모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출하고, 학교도 안 가고 해서 어떻게든 소통의 끈을 마련하려고 노트에 편지를 써서 아이 침대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아이가 오늘 밤에 읽을지 가출했다가 며칠 만에 와서 볼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늘 사랑하고 있다” 표현했습니다. 방황하는 아이를 부모가 어떻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기에 “언제든지 집에 오고 싶으면 와라, 여기는 네 집이고 늘 너를 반기는 부모가 있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별이는 외향적인 아이니까, 지금은 밖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 게 중요할 거야. 무슨 일을 저질러도 소중한 딸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채혜경 상담 선생님들이 이런 성향의 아이들은 “나갈 때 잡지 말고, 들어왔을 때 환대를 해주라” 하 시더라고요. 아이가 “며칠 있다 올 거야” 한마디 하고 나가버리면 정말 걱정이 많죠. 그렇다고 붙잡아 둘 수도 없어요. 어쨌든 집에 들어오면 따뜻하게 맞아주고, 나가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화하면 바로 달려가는 거죠.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들어가자’ 했는데 본인이 싫다고 하면, 억지로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지나고 보니깐 그게 부모 역할이더라고요. “이게 부모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이 아이의 엄마가 됐구나!” 그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어른들 말씀이 “위는 뚫려 있다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잖아요? 앞뒤 좌우는 다 막혔지만. 그런 시간에 남편과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사춘기를 통해서 진짜 부모가 되는 것 같아요.

정철모 아이가 방황의 정점에 있을 때, 걱정이 훨씬 많았죠. 캄캄한 동굴에 갇힌 것처럼. 이 동굴에 끝이 있을까? 아니면 터널이라서 건너편으로 갈 수 있을까? 아이가 가출하면 다시 못 볼 거 같아서, 자기가 원해도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은 아닐까?’ 불안했죠. 한참 뒤에,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었을 때, 별이도 우리만큼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어머니 됨의 기쁨은 어디에 있나요?

정철모 별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온 가족이 기뻐하며 별이를 ‘기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기쁨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애가 정말 우리의 기쁨일까?’ 고민 많았죠. 지나고 나니까 기쁨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전에는 조례할 때쯤 학생이 오면 “왜 이렇게 늦었냐?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라!” 야단쳤는데, 우리 딸은 집에 누워서 학교도 안 가고 있는데, 조례에 맞춰 뛰어난 아이를 보면 그 자체로 고마운 거죠. 별이 사춘기 덕분에 모든 아이를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별이와 함께 사춘기를 겪으면서 좀 더 넓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니, 그것이 아버지 됨의 기쁨일 것입니다.



채해경 우리 삶의 목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픔과 고통 없이 비바람과 태풍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죠. 그 어려운 시기가 즐겁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돌이켜 보면 감사한 시간이라고 느껴요. 요즘 결혼을 회피하는 시대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봐야 한다고 해요. 내 즐거움만 찾는 시대에 자녀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것 같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건 그 시간을 겪어봤기 때문이겠죠.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철모 아버지학교에서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와 허깅을 습관화하라고 배웠는데, 그것이 아이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딸이 많이 방황했지만, ‘저녁에 기도하러 오너라’ 하면 저희 침대에 와서 짹 었드려요. 그러면 아내는 팔다리를 주무르고 저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위 두 딸은 고2, 고3 지나가는 시기이고 기숙사에 있기도 해서 축복기도를 많이 못 받았는데, 별이는 방황하는 시기라도 집에 있을 때는 축복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런 축복기도가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기도하는 아빠에게도 아이에게 화났던 일이나 감정의 찌꺼기들이 많이 내려가고 버려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학교에서 강조하는 자녀에게 매일 축복기도하고 허깅하는 생활습관은 아버지학교를 다니지 않는 분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언제나 아빠 편이에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빠! 아빠의 딸로 태어나 사랑받고,
아빠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운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게 거저 주어진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은혜랍니다.

아빠는 저에게(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이 부족해서 늘 미안해하시지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주셨다는 걸 알아요.


결코, 단 한 순간도 아빠의 사랑이 작고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같은 곳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음에 감사드려요.

성인이 되어 오롯이 나의 힘으로 세상에 서보니,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란 걸 새삼 느껴요.





아빠가 언제나 제 편이듯이

특히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그 무게는 제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부담이었지요.

그래도 ‘벅차다, 어렵다’ 불평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묵묵히

그리고 흔쾌히’ 책임져 주셔서 감사해요.

그 덕에 몸도 마음도, 그리고 생각도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아빠도 좋아하는 것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으셨을 텐데,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 가족을 우선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아빠 덕분에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신뢰가 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저분도 누군가의 아빠겠지?’란 생각이 들면 그분도

열심히 사는 게 보이고, 또 괜히 불필요한 경계심도 사라짐이 느껴진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좋은 통로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족만을 위해서 달려오신 아빠, 이제 우리도 다 컸으니

이제는 아빠 자신을 돌보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주변 풍광도 살피며

노을 질 땐 노을도 즐기고, 길가에 핀 꽃도 구경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전 언제나 아빠 편이에요. 아빠가 언제나 제 편이듯이 말이에요.

시흥 아버지학교 26기를 수료한 안오목 님의 따님

안슬지 님의 편지를 편집한 내용입니다



박종길 목사
서빙고 온누리교회 담당

아버지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자녀들은 아버지라는 창(窓)을 통해서 세상을 만납니다. 만약 그 창에 서리가 끼고, 깨졌다면 자녀들이 보는 세상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빛을 통과하는 창이 더럽다면 세상을 보는 자녀들의 가치관과 시야는 왜곡되고 불편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존재만으로도 영향력이 큼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창이 온전하지 않아서 형제간 우애가 깨지고, 결국 자식도 힘든 인생의 여정을 밟아야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이가 많았고, 집에는 이복형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던 사건에서 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삭은 남자답고 털이 많으며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자신에게 해 주는 에서를 편애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사랑에 대한 결핍을 겪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향한 집착에는 이삭의 편애라는 굴절된 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역시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을 편애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는 요셉을 미워하여 애굽에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삭의 편애는 야곱의 편애를 걸쳐 형제들 간 있을 수 없는 비극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잃고 고통스러운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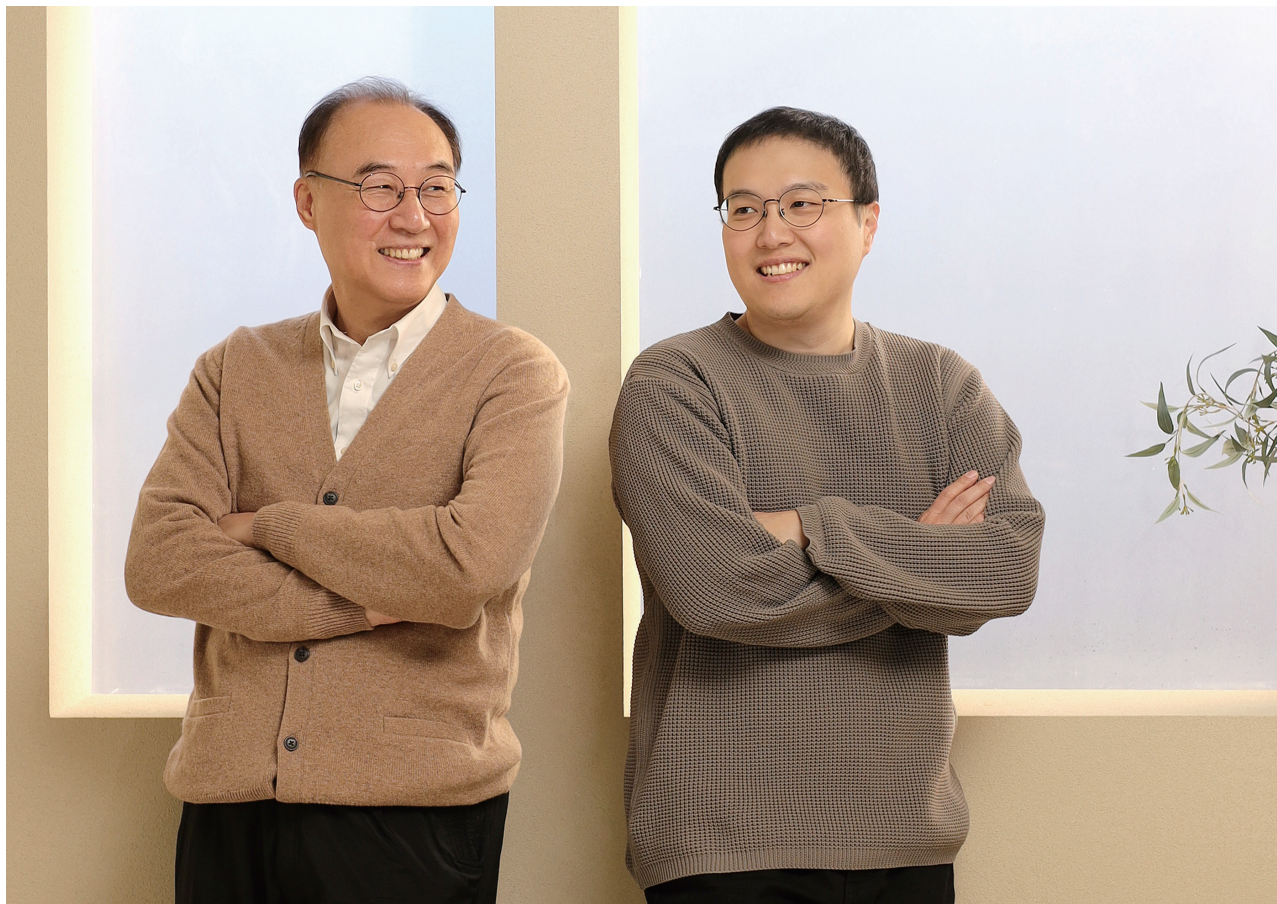
흔들리는 아버지의 권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버지의 축복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아버지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처럼 아버지는 자녀를 축복하는 통로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의 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26).”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이 축복 기도문으로 아버지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한두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자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순결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순결은 가정의 순결입니다. 특별히 성(性)문화에서, 삶의 현장에서 순결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순결이 회복될 때 아버지의 권위도 회복됩니다. 능력은 거룩에서 나오고 거룩은 순결에서 시작됩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부정적인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행복의 뿌리는 아버지의 순결에 달려 있습니다. 순결할 때, 권위가 회복되고, 순결한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이 순결해집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아버지의 상(像)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여는 통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켜 주십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교육이나 훈계보다 강한 영향을 줍니다. 자녀에게 기도하는 아버지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태아가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어 영양분과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기도의 생명줄을 통해서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둠과 절망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아픔의 시간에 빛을 주고, 희망을 주는 나침반은 기도입니다.

야곱은 우여곡절을 겪은 뒤 애굽의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에 섭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는 반면 요구사항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약하고 부족한 아버지는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자리를 내놓지 않으시듯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정을 지키는 버팀목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만으로도 감동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아버지학교 동창생

우리는 아버지학교 동창생입니다. 본래 아버지와 아들 사이지만, 아버지학교 선후배로서 형제애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죠. 제 아들 최의석 형제님은 강남 69기 온라인으로 아버지학교를 수료했고, 저는 1999년 본부 아버지학교 21기를 수료, 현재는 두란노아버지학교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성완 형제입니다. 우리가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세대를 잇는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한 가정을 가꾸고 있으니 이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숙제 잘 하고 있어요

최의석 아버지학교 하면서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거든요. 요즘 매일은 못해도 아이가 좋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머리에 손을 얹으면 가만히 있어요. 기도를 기다리는 거죠. 기도가 끝나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하라’는 식으로 뽀뽀 쳐다봐요. 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제가 저를 축복하는 거죠. “여호와야 아빠에게 복을 주시고” 이러



면서, 아들이 아빠를 축복해주는 특별한 경험이었습시다. 최근 동생도 태어났는데, 동생 머리에 손 얹고, 엄마 머리에 손 얹고,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축복기도를 해준 적도 있어요.

한번은 일본 장모님 댁에 방문했을 때 장모님 머리에도 손을 얹고 저를 쳐다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직 장모님이 하나님을 모르시는데, 일본 분이시니까 알아들으실지 못 알아들으실지 한국말로 축복기도를 했어요. 장모님이 감동해서 우시더라고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겠구나! 아내와 함께 감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성완 저는 해외출장을 다녀오니까 아내가 아버지학교에 저를 등록해 놓고 가야 한다고 등 떠밀어서 했죠. 평균 이상 80점은 되는 아버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의아했습시다. 그래도 아내가 저렇게 원하니 ‘아버지학교에서 20점을 채워보자’ 했는데, ‘20점도 안 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발견했습시다. 매일 허깅하고 축복기도하는 아버지학교 숙제는 아이들 장성하고 독립하면서부터는 못 하고 있지만, 우리 아들딸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빠라서 진짜 행복해

최의석 아빠라서 행복한 이유를 하나만 꼽기가 어려운데요, 아내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기쁨이 훨씬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눈뜰 때부터 기뻐요. 아기들이 저를 깨우거든요. 제가 눈을 못 뜨면 “왜 눈을 못 떠요?” 귀여운 말투로 물어봐요. 그러면 몸이 피곤해도 그걸 다 잊어요. 첫째아들에게 자기 전에 기도를 시켜봤어요. “엄마가 계단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가 허리가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상상치 못한 기도를 해줄 때 진짜 행복합니다. 둘째는 앞으로 기기 시작했는데, 제

얼굴 보고 활짝 웃으면서 막 다가오려고 할 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기쁨인 거 같아요. 그리고 아내와 같이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 의논하고 실천해 나가는 일도 나름의 기쁨이 있어서 저희는 한번 맛을 들이면 한도 끝도 없이 재밌는 게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성완 오래전 얘기인데 아들이 축구광이에요. 어느 날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전화로 “여기 와서 보니까 축구가 다가 아니다” 하더군요. 넓은 세상에서 또 다른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그때 하나의 장벽을 깨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옛날 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저도 미국유학 갈 때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몸을 던져 하나씩 장벽을 깨나갈 때 기쁨이 있었거든요. 물론 외로움도 있었지만. 제 지론이 ‘남자는 외로울 때 뭔가를 이뤄낸다’였거든요. 이때 아버지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꾸 간섭하면, 문제가 안 될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아버지학교를 통해 기다림의 미학을 배웠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때 오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할까?

최성완 세대를 잇는 일은 아버지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문화,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가족의 정체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니까요. 우리 부부가 감사한 것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었다는 점이지요. 교회 가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라, 성경을 읽어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꾸준히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 보여주었죠. 우리 아들도 똑같더라고요. 머느리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하니까, “남편이 강요하지 않아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들도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향기와 빛을 주변에 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신앙적으로 세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흐뭇합니다.

최의석 제 생각에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다가오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아랫세대가 윗세대에게 다가가는냐? 그것도 아닌 거 같아요. 물론 다가가면 좋아하시는 걸 알지만, 다가가기 싫은 마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두 세대가 완벽하게 합쳐져서 한 세대처럼 보이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좀 더 다가가고, 누가 좀 더 마음을 열어야 할까? 저는 아랫세대인 거 같아요. 또 저희 세대가 그럴 수 있도록 윗세대도 평소 본딩 bonding, 유대감 형성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친구 같은 아버지도 좋지만, 저는 ‘아버지다운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들에게 ‘진짜 아빠’로 느껴지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커서도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지 않을까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최의석 저희 아버지 얼굴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아버지는 행복한 분이시고, 주변에 행복을 전달하고 싶은 분이세요. 사실 아버지학교를 하고 깨달았는데, 저 어릴 적 아버지는 ‘부재형’에 가까워요. 곁에는 계셨지만, 주말에 종일 주무신다든가 뭘 물어봐도 건성건성 대답하신다든가 그런 기억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멈추시고, 자신을 깨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은퇴 후 아버지학교를 전적으로 섬기고 계신 데, 삶의 의미를 차곡차곡 풍부하게 만들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 아빠의 전성기’라고 느낍니다. 나도 그래야 할 텐데,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정말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최성완 아들 삶의 여정을 보면 저와 거의 비슷해서 좀 더 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어떤 부분 초조해할 때, ‘괜찮다’ ‘기다려주자’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격 원만하고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같이 있으면 편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를 닮았다 싶은데,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죠. 저는 한정된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무한의 환경이고 가능성도 무한하죠. 그러면서 가끔 놀라곤 하는데,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 보면 제가 뜨끔뜨끔 해지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이 많았어요. 저는 우리 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기대가 큼니다.

아버지학교 스태프_봉사자란?

2023~2024년 국내 지부장님께 물었습니다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버지학교 헌신자다 춘천지부 염노섭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강원남부지부 강치한

새벽 눈길의 첫 발자욱 원주지부 이동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속초지부 엄복덕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평정지부 최대순

가정마다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도록 터 주는 자다 강릉지부 이명호

따스한 봄바람이다 얼어있는 대지를 훈훈하게 녹인다 제주지부 임세택

가정에 행복 전도사이다 서귀포지부 송기동

이 땅 위의 가정을 세우는 아버지학교의 주춧돌이다 포항지부 홍사훈

하나님의 가정창조 형상을 회복시키는 동역자다 울산지부 유인만

아버지학교의 심장이다 창원지부 김형성

선택받았으니 꼭 섬겨야 할 사명자이다 충청중부 이재택

예스맨이자 동역자이다 청주지부 정상오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사랑 마음을 값없이 나누는 것 충서지부 최철수

사랑을 전하고 누리는 자 천안아산 최재봉

시간과 물질로 섬기는 자 제천지부 김수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충주지부 오세중

거룩한 사명을 즐겁게 기꺼이 감당하는 자 대전지부 오율성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명자 남부지부 김춘석

이 땅의 아버지들을 세워가는 헌신자 남부지부장 김호용

가정의 장으로서 어둠 속에서도 총총히 빛나는 빛의 사자들 강서지부 황지태

만나면 반갑고 헤어질 땐 그리운 family builder 서남지부 남영우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도구로 쓰임 받는 헌신자 북부지부 고수철

가정을 바로 세우고자 부르심을 받은 가이드 동부지부 민갑동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회복 운동에 그 소명을 감당하는 자 중부지부 김대옥

이 땅에 아버지와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하는 헌신자 본부지부 서관형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는 안내자 서부지부 김덕용

주님의 마음과 뜨거운 사랑으로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려는 사역자 중앙지부 유두식

나를 뒤돌아보는 일상이다 마포지부 이순영

나의 가정을 넘어 이웃의 가정을 세우는 아버지 강남지부 정진혁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아버지행전을 써 내려가는 행복전도자 과천지부 김종철

아버지학교를 통하여 모든 가정이 작은 하나님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김포지부 박찬은

하늘 아버지의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데 헌신하고 구별된 봉사자들이다 덕양지부 김재권

천하보다 귀한 이 땅의 아버지를 찾아 준비하는 청지기들이다 부천지부 김재형

은혜와 감동의 발자취를 온세대 기쁨을 함께 하는 자 성남/분당지부 한형식

천국 마차꾼이며 섬김 바이러스의 첨단군병들 수원지부 김윤식

우리를 다시 비춰보는 거울 시흥지부 김장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 땅의 아버지를 섬기는 헌신자 안산지부 서상덕

행복한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행복 충전소의 에너지원 용인지부 이대일

가정의 행복을 전해주는 전령 의양동연지부 김성의

가족의 소중함을 전파하는 전도자 화성오산지부 김덕진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일 평택안성지부 이재학

아버지의 사명死命을 받은 자 파주지부 장규덕

겸손과 섬김을 무기로 하는 강철조직 부대 일산지부 정재풍

하나님 첫사랑의 내비게이션 포천철원지부 이영재

가정을 세우며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 이천여주지부 최정수



꿈을 키우는 성장소

두란노아버지학교 최초, 쌍둥이 형제 스태프를 소개합니다. 든든한 맏형 박형준님은 마포아버지학교 14기를, 유쾌한 동생 박재준님은 과천아버지학교 30기를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11월, 처음으로 과천부부학교에서 형님 부부는 진행자로, 동생 부부는 관리팀으로 함께 봉사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형제가 아버지학교와 부부학교에서 스태프로 활동하게 되니 기쁨과 보람이 두세 배로 커졌답니다. 이렇게 아버지학교는 가족 삶의 방식, 꿈을 키우는 성장소가 되었습니다.

봉사자의 기쁨이 두세~~배라네

박형준 사람이 막연하게 어떤 좋은 상상을 하잖아요.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뤄지면 정말 좋겠다! 그게 사실은 동생이 아버지학교와 부부학교를 수료해서 같이 스태프로 활동하는 거였어요. 진짜 좋은 상상 중 하나였는데, 이번에 그 꿈이 이뤄졌죠. 제가 부부학교 진행을 하고 동생 부부가 기쁨으로 관리팀 스태프로 섬기면서 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가 부부학교 강의를 하고, 동생 부부가 부부학교 진행이나 조장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박재준 과천 부부학교 6기를 수료했는데, 당시 스태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나? 본인들의 재능 기부는 물론이고, 금전적인 부분까지 다 봉사를 하시는 거죠. 저도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여러 봉사를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정을 위하는 봉사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받았으니 돌려드려야 마땅하고, 우리 형이 굉장히 원하는 걸 알기에 뿌리치기 힘들었습니다.

그 전에 부부학교가 우리 가정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장모님 밑에서 평생 커운 아내가 교회에서 하는 부부학교를 간 거죠. 부부학교를 수료하고 나서 아내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교회 다닐래요?” 정말 의미 있고, 감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무감이라도 나도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은 당연히 있었고, 아내가 저보다 적극적으로 형님 부부가 하시는데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느냐 해서 봉사하게 되었죠. 저희는 과천부부학교 7기 지원자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박형준 제가 아버지학교 스태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꼭 물어봐요. “여보, 어떤 일들이 있었어? 오늘은 어떤 감동을 느꼈어?” 계속 물어보면 30분, 1시간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부학교는 집에 돌아가서 이야기 안 하고, 오고 가면서 아내와 계속 얘기를 나누죠. 그러면 마포에서 과천까지 1시간 오고 가고 하는 시간 동안 “여보, 오늘은 이런 일들이 기대돼” “오늘은 이런 부분이 좋았어” “다음에는 이런 걸 해보면 어때?” 대화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학교 스태프는 내 삶이 풍성해지는 느낌이라면, 부부학교 스태프는 부부가 함께 풍성해지는 느낌이다 보니까 둘 다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부부학교는 아내와 함께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더 좋은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학교 모드로 살아요

박형준 아들이 24살, 딸이 20살인데 아무리 커도 아버지학교 숙제로 안아주고 축복해주는데,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큰 힘을 얻는다는 것을 많이 느끼죠. 감사하게도 지금은 서로 자유롭게 안아줘요. 아버지학교를 시작하면서 저희 집안에 작은 규칙이 생겼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는 딸부터 아들, 아내 순으로 안아주고, 저녁에 퇴근하면 아내가 먼저 안아줍니다.

박재준 형은 오래전에 했으니까 내공이 높은 거 같아요. 저는 아버지학교를 시작할 때 딸이 중3이었고 아들이 중1이었죠. 아들하고는 허깅이 안 되는 거예요. 거부하더라고요. “아버지학교 숙제야, 숙제 좀 하게 해줘!” 했더니 “아~알았어” 그러면서 간신히 허깅을 했죠. 딸은 숙제가 아니라도 항상 안아주고 뽀뽀해주죠. 아버지학교를 수료하고 났더니 아들이 “이제 끝났잖아!” 아주 전형적인 중학생 남자아이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아버지학교 모드로 행동하니 아들과 진짜 친해졌어요. 허깅은 못 해도 서로 쉽게 터치할 수 있고 어디 가면서 손을 붙잡으면 뭔가 어색해해도, 아들이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는 것들이 확실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박형준 인정!



과천부부학교7기 봉사자부부 박재준/백순주(관리팀) & 박형준/유상옥(진행팀)

꿈을 이뤄가는 여정



박형준 저에게 아버지학교 스태프는 제 삶의 성장 과정입니다.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가정이 성장하고, 부부가 성장하고~ 물론 그 시작은 내가 먼저 돌이키는 과정에서 시작했지만, 우리 부부가 꿈을 이뤄가는 여정이 아버지학교에 분명히 있거든요. 아내와 함께 “우리가 많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돌보는 일에 우리 삶을 쏟으면 어떨겠어?” 이야기 나누며, 몇 년 후면 돌이 전 세계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가정을 치유하는 구체적인 꿈을 갖게 되었고요. 그 꿈의 여정이 제게는 아버지학교, 부부학교입니다.

박재준 형이 10년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을 봤어요. 부부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지? 생각했는데, 이번에 과천 부부학교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였구나!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었구나!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좋은 역할을 하겠구나! 참 멋있더라고요. 물론 멋있고 보기 좋다고 바로 쫓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저희 부부도 같이 부부학교를 수료하고, 제가 아버지학교를 수료하면서 우리 가정이 같이 손잡고 주일날 교회에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가? 생각했습니다. 옆에서 형을 지켜보며 저 나름대로 동기부여도 받고, 형이 그렇게 멋있게 좋은 일을 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본인 가정이 정말 최고의 행복을 누리잖아요? 자신이 하는 일도 즐거운데, 거기서 본인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부분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쫓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같이 쓰는 아버지학교 이력서

“우리 가족은 아버지학교 팬클럽”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할 만큼 “아버지학교를 통해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청주아버지학교 김현찬 부지부장님. 그는 2006년 충북남부 1기 수료 후,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아버지학교 스태프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형님과 조카사위는 물론이고, 말아들, 두 사위와 사돈들까지 아버지학교에서는 “형제님”으로 통합니다. 최근 청주아버지학교 73기에서는 ‘가족잔치’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아버지학교와 동행하는 이유

저는 2007년부터 찬양팀 스태프로 시작해서 주로 찬양으로 아버지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진행자, 조장 등 두루두루 맡아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학교를 섬기는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면 ‘아버지 됨의 정체성’을 계속 일깨우고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아버지학교를 통해 누리게 된 은혜를 ‘빛진 자의 마음’으로 갚고자 하는 뜻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버지학교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가면을 쓰고 살았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신앙과 일상생활에 벌어진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더욱 화목해졌고, 상처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삶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전환점을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얻었고, 아버지학교와 동행하면서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삶에 지쳐있다가도 아버지학교에 가면 활기를 되찾습니다. 귀한 형제님들 만나면서 위로와 도전을 받는 거죠. 지금도 아버지학교만 가면 맨날 울어요. 감사해서. 정말 낮은 자존감으로 괴로운 나날들이 많았는데, 아버지학교를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같이 쓰는 아버지학교 이력서

저처럼 스물다섯에 결혼한 만아들 김광성 형제는 결혼 전에 결혼예비학교를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했고, 결혼하자마자 그해 바로 아버지학교를 수료했습니다. 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 보기에 좋았나 봐요. 큰 사위 김선우, 둘째 사위 장신혁 형제도 청주아버지학교 73기를 수료했습니다. 게다가 만아들의 장인어른도 73기를 수료하셨으니, 그야말로 73기 수료식이 가족 잔치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학교 이력서를 같이 쓰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날 둘째 사위 부모님께서 강원도 사시는데 아들 수료식을 축하하러 오셨어요. 알고 보니 그 사돈어른도 국군아버지학교를 수료하셨더라고요. 큰사위 부모님은 김천에 사시는데 73기 수료식에 축하하러 오셨고, 사돈 넷이 아버지학교 수료식에서 모인 거죠.

큰딸 결혼할 때,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뵈겠습니다” 했더니 사돈 되실 분이 “저는 뵈 적 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디서 저를 보셨어요?” 했더니 “영동에서 아버지학교 하시는 거 봤습니다” 하시더군요. 그때 사돈은 지원자였고, 저는 찬양팀장이었던 거죠. 전혀 몰랐는데, 상견례 자리에





아버지학교 티셔츠를 입고 우리가 함께 썼을 때,
엄청 행복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건 해줄 수 없어도
아버지학교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뿌듯합니다.

서 그렇게 만나게 되어 신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충북남부아버지학교
동창생이었던 거죠. 덕분에 그날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학교를 빼놓고 우리 가족의 역사를 말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학교 팬클럽

이해 청주 75기 때부터 둘째 사위도 찬양팀 스태프로 함께 섬기기 시작
했습니다. 맏아들은 그전부터 같이 섬기려 다녔고요. 우리 큰사위는 수
료식 전날 아들을 낳아서 큰딸 세족식을 못 했는데, 청주에 와서 75기
때 세족식을 치렀습니다. 사실 우리 큰딸도 청소년감동캠프 출신입니
다. 한창 사춘기 때 참석했는데, 저는 거기 스태프로 갔죠. 당시 청주에
서 처음 시작한 청소년감동캠프는 1~3주 차까지는 자녀를 대상으로 진
행하고, 4주 차에 부모님 모시고 세족식을 했습니다. 가족이 다들 아버
지학교를 좋아합니다. 팬클럽이에요.

아버지학교 티셔츠를 입고 우리가 함께 썼을 때, 엄청 행복했습니다. 자
녀들에게 다른 건 해줄 수 없어도 아버지학교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
었다는 것이 정말 뿌듯합니다. 제가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지도
하겠어요? 얹혀 놓고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기도 어렵잖아요. 아버지로
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데, 아버지학교에서 다 가르쳐주니까 아
버지학교에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버지 역할 중에 가장 큰 부분에
“아버지학교 보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자녀들이
아버지학교를 수료하고, 또 스태프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으니 세상에
서 가장 멋진 일 아닌가요?!

김기석의 그림읽기

특별한 빛을 보내오는 사람들



그림을 읽으며
고요히 자신을 성찰하는 순간
일상은 경건의 통로가 된다

제 목 특별한 빛을 보내오는 사람들·김기석의 그림읽기
지은이 김기석
ISBN 978-89-8430-896-1 03230
출간일 2023년 10월 31일
출판사 도서출판kmc

제본/판형 누드사철 제본, 150×197mm
면 수 244쪽
가 격 22,000원
특별구성 영화 메시지카드(32매)
분 류 신앙생활/영성, 신앙일반/교양

구입 문의 영업부 02-399-2008 내용 문의 편집부 02-399-4360 kmcpress@chol.com

“

생각의 길이 막힐 때마다 그림을 보곤 한다
성경의 주름진 갈피에 서린 하나님 체험을 읽어내는 순간,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

김기석 목사의 신작 <<특별한 빛을 보내오는 사람들>>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밀레 <이삭 줍는 사람들>에서 로댕 <대성당>, 샤갈 <이삭의 희생>까지 22편의 명화를 통해 생각의 길을 열어 더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나아간다.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1부 ‘거룩한 삶은 어디에 있는가’와 2부 ‘우리는 모두 흔들리기에’는 평범하지만 거룩한 일상의 순간을 펼쳐 보이고, 우리의 감추고 싶은 불안과 탐욕, 의심, 분노, 절망을 꼼꼼히 읽어간다. 3부 ‘소란한 세상에서 균형을 찾다’에서는 흔들릴지언정 중심을 잃지 않고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야 함을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전한다. 4부 ‘탄생부터 부활까지’에서 세상의 슬픔을 짊어지신 예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은 나를, 내 삶을, 신앙을 돌아보게 한다. 5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으로’에서는 빛과 어둠, 성과 속, 선과 악이 뒤엉켜 있는 삶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깨닫는다.

일상을 영화의 감동으로 펼쳐기

성경 이야기를 담은 영화의 감동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펼쳐볼 수 있는 크기에 180도로 짝 펼쳐지는 누드사철 제본으로 만들었다. 이 책의 또 다른 볼거리는 영화를 선별하여 제작한 32장의 메시지 카드이다. 눈길이 닿는 곳에 두었다가 북마크로 활용하거나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해도 좋을 것이다.



작가 소개

김기석 목사는 광야와 같은 현실에서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는 목회를 해왔다. 교회에서는 다정하고 유쾌한 목사로, 밖에서는 지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역할을 감당했다. 그의 메시지는 열린 신앙과 지성,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이 녹아들어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

이화여고 교목, 청파감리교회 담임(1997~2024)을 지냈으며, 저서로는 《새로 봄》 《말씀 등불 밝히고》 《김기석 목사의 청년 편지》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 《당신의 친구는 안녕한가》 《일상 순례자》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마르틴 루터의 단순한 기도》 등이 있다.



책 읽는 아버지가 자녀의 미래다

파더스북클럽 소개 동영상 보기

파더스북클럽 아버지들의 행복한 독서나눔



2023년 아버지들의 행복한 독서 나눔 [파더스북클럽]에서 함께 나눈 도서는 총 네 권으로, 비벡 H. 머시의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켈리 하딩의 《다정함의 과학》, 필립 켈리의 《양과 목자》, 파커J. 파머의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입니다. 강남지부가 운영하고 여러 지부가 연합하여 진행한 아버지들의 독서 나눔은 2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카카오태깅을 통해 독서 내용과 느낀점, 적용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였으며,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책거리 모임을 가지며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책으로 아버지들의 행복한 독서나눔이 이어질까요? 올해 함께 도전해보세요!

문의 02)2182-9171

← 파더스북클럽

독서 나눔을 이어온 아버지들에게 물었습니다.

- 1) 파더스북클럽 독서 나눔 중, 가장 마음에 남는 책과 그 이유는?
- 2)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와 그 이유는?
- 3) 아버지들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 파더스북클럽



최시영

1) [다정함의 과학] : 관계의 중요성과 여러 가지 병의 원인과 해결책이 관계에 답이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2)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집으로 가서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라(마더 테레사)” : 개인적으로 아내/자녀와 관계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나를 돌아보며 내 중심이 아니라 가족 중심으로 사랑하는 법은 무엇인가 생각했다. 3) 어떤 책이든 저자가 열심히 관찰하고 수많은 고민을 거쳐 나온 결과물(책)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아서. 그리고 아버지들이 같은 책을 ‘함께’ 읽는 게 참 좋았다.



정진혁

1)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 중년 이후 외로울 수 있는 삶을 객관적으로 경고, 분석한 내용이 인상 깊었다. 2) “진짜가 된다는 것은 취약성을 보이는 일이다” :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용하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 투명해지는 삶이 온전한 삶이다. 3) 독서는 복잡한 현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상으로 이끈다. 외로움을 이기고 위로를 구하고 회복에 이르게 한다. 독서 하는 나를 바라보는 이에게 점수를 얻는 것은 덤이다.



김윤영

1) [다정함의 과학] : 질병 뒤에 숨은 요인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건강한 삶을 살도록 밝혀줌. 2) “당신은 또 다른 나다. 내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나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다(루이스 발데즈)” : 나의 말투, 몸짓 하나하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의 건강에 작은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나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3) 아버지 학교의 5가지 주제(영향력, 남성, 사명, 영성, 가정)를 깊이 성찰하고, 아버지의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황정택

1)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 외로움을 극복하고, 연결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 2)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 베트남에 있으면서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서로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으며,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경험을 했다. 3) 독서를 통해 자기주장만 하는 끈대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아버지 삶의 본질을 다하고, 가정에 본이 될 수 있다.



황정호

1)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 : 60대 나이, 삶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듯하여 2) “일과 소명/ 제대로 알 때까지 배우고 또 배울 수 있다는 것” : 3) 아버지들이 분주하게 일상생활에 얽매어 살아가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배우고 익히는 것이 한 가장과 사회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서. 또 다양한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어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과 교회, 기업이 삽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두란노아버지학교 운동을 지지해주신 후원자님과 후원교회와 기업체 덕분에 국내외 수많은 아버지가 세워지고, 가정의 기초가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귀한 동역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큰뜻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후원교회

공항벨엘교회
과천약수교회
금당남부교회
김포남현교회
더새로운교회
동송교회
목동제일교회
목양교회
성포동교회
수원영락교회
순천제일교회
순천중앙교회
영도교회
예능교회
용인비전교회
원주신일교회
의정부비전교회
이천중앙교회
일산동안교회
일산영문교회
정락교회
중부명성교회
청주동산교회
하임교회
화성교회
희망찬교회
꿈의교회
꿈동산교회

후원기업

(주)깨끗한사람들
(주)드림엔지니어링
(주)만나하네스
(주)무림텍스타일
(주)세라빌인터내셔널
(주)씨엔테크
(주)아이디에스엘티
(주)아이젠파마코리아
(주)에코정우
(주)원일인터내쇼날
(주)이든테크
(주)인트루바인
(주)제이라로비
(주)태산이앤씨
평화산업(합자)
하이큐텍
고감정공
골프코스멘토
다비드안경
더불어자원
도영건설
문화엔터프라이즈
법무법인화인
베리트
베스트자동화
부국TECH
사단법인 예닮나눔
사단법인 우성하나미션

서준바이오텍
세무법인 길
세무사조성현사무소
소방커피
수색태양오토바이상사
스트라이커캐피탈매니지먼트
신도OA
신산약국
약수주유소
예닮나눔병원
오성주내과
우드리퍼블릭
유텍엔지니어링
유호섭 구포하나정형외과
이너스건설회사
이중학 덕소서울정형외과
(주)더카이노스
주식회사티아이
참술산업(주)
최희갑세무회계사무소
토우식품
풍년유통
한스빌딩
한웅테크
창조종합건설

개인후원
5,988명

※개인 후원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후원자로 함께 해주세요

소중한 아버지학교 후원금으로 전 세계 수많은 아버지를 바로 세우고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 및 문의 02)2182-9130, 9131

후원 계좌 신한은행 140-007-819495 예금주 : (사)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후원하기



사랑을
주는
존재가
되는법

배우 송재희 이야기
두란노아버지학교 수료자



아버지의 큰기쁨 찾기

두란노아버지학교에서
아버지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켜세요!

개설/입학 문의 02)2182-9100